

결 정

2018 - 3038 신문윤리강령 위반
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

주 문

중앙일보 2017년 12월 16일자 「'512살' 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최고령 상어」
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'주의' 조치한다.

이 유

1.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중앙일보	국민일보
'512살' 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최고령 상어 [중앙일보] 입력 2017.12.16 00:00 수정 2017.12.16 10:10	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'512살' 최고령 상어 입력 : 2017-12-15 16:27/수정 : 2017-12-15 16:35
<u>북대서양 노르웨이 바다에서 512살로 추정되는 최고령 그린란드 상어(Greenland shark)가 발견됐다. 1505년이면 조선 시대 연산군(재위 1494~1506) 재임 당시 태어난 상어다.</u> <u>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최대 512살로 추정되는 이 그린란드 상어는 해양생물학자 줄리어스 닐슨이 속한 그린란드 상어 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. 지난 8월부터 그린란드 상어 28마리를 연구해 온 연구팀은 그중 가장 거대한 크기의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추산해냈다.</u>	<u>북대서양 노르웨이 바다에서 512살로 추정되는 최고령 그린란드 상어가 발견됐다.</u> <u>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최대 512살로 추정되는 이 그린란드 상어는 해양생물학자 줄리어스 닐슨이 속한 그린란드 상어 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. 지난 8월부터 그린란드 상어 28마리를 연구해 온 연구팀은 그중 가장 거대한 크기의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추산해냈다.</u>
<u>연구팀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1505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린란드 상어의 크기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다.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상어가 자라난</u>	<u>연구팀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1505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린란드 상어의 크기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다.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상어가 자라난</u>

<p>길이를 18~21피트로 측정했으며, 이는 약 549~640cm에 달하는 수치다. 이와 함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이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272~512살 사이로 결정했다.</p>	<p>길이를 18~21피트로 측정했으며, 이는 약 549~640cm에 달하는 수치다. 이와 함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이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272~512살 사이로 결정했다.</p>
<p>이번에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 추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척추동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 된다.</p>	<p>그린란드 상어는 북극해에 서식하며 주로 물고기와 물범 등을 잡아먹는다. 그러나 사냥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아 ‘잠꾸러기 상어’로 불리기도 한다. 몸집이 크고 동작이 굼뜨지만 수명이 긴 이유는 피부에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</p>
<p>그린란드 상어는 북극해에 서식하며 주로 물고기와 물범 등을 잡아먹는다. 그러나 사냥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아 ‘잠꾸러기 상어’로 불리기도 한다. 몸집이 크고 동작이 굼뜨지만 수명이 긴 이유는 피부에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.</p>	<p>이번에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 추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척추동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 된다. 미국의 건국은 물론 나폴레옹 전쟁, 타이태닉호 침몰 등과 같은 주요 세계사를 모두 지켜본 셈이다. 이 그린란드 상어의 추정 출생년도인 1505년,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연산군 11년 때다.</p>
<p>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209182</p>	<p>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1983992&code=61131211&sid1=int</p>

2.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적시 기사는 국민일보가 2017년 12월 15일 16시35분에 송고한 「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‘512살’ 최고령 상어」 제목의 기사를 전문 한 문장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.

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 ②(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)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,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.